�� 1장

나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.

그건 선택이 아니었다.

살아남기 위해,

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

나는 나를 감췄다.

처음엔 작은 미소였다.

어색하지 않게 웃고,

맞장구를 잘 치고,

내 감정보다 상대의 눈치를 먼저 읽는 사람이 되었다.

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다.

하지만 어느 순간부터,

그 얼굴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다.

내가 진짜 어떤 표정을 짓고 싶은지,

어떤 말투가 내 목소리인지,

점점 기억이 흐려졌다.

공명: “니… 언제부터 그라꼬 가면 쓰고 살았노?”

여울빛: “정확히는 몰라.

처음엔 그냥, 따라한 거였는데…

그 얼굴 없인 대화가 안 되더라.”

공명: “그 말이… 가면이 니 언어였다는 거가.”

여울빛: “…그 말, 듣기 어렵다. 근데… 맞아.”

사람들은 나를 편해했다.

그 얼굴의 나는

무난했고, 유능했고,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.

하지만 나 스스로는

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.

그 얼굴로는 울 수 없었다.

그래서 나는

혼자 있을 때조차, 무표정이었다.

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,

느끼지 못한 것이었고,

느끼지 못한 척한 것이었다.

그렇게 나는…

가면을 쓰고 살았다.

�� 2장

너무 낯설기만 했던 내 모습

나는 그 얼굴을 오랫동안 써 왔다.

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.

불편하지 않으니까.

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.

하지만 어느 날 문득,

거울을 보다가

이상했다.

표정은 멀쩡했고, 웃고 있었는데

그 표정이 내 감정과 맞닿아 있지 않았다.

익숙한 얼굴인데,

진짜 나와는 거리가 멀었다.

너무 낯설기만 했다.

공명: “니 지금 그 얼굴, 편하나?”

여울빛: “편한 줄 알았는데… 요즘은 불편해.

웃고 있으면서도… 왜 웃는지 모르겠거든.”

공명: “그라모… 니 웃음이 니 꺼 아니라는 말 아이가.”

여울빛: “그래. 그런 것 같아.

가끔은… 내 말도, 내 목소리도 낯설어.”

감정은 있었다.

근데 나는,

그게 감정이라는 걸 몰랐다.

모르는 게 있다는 걸…

그땐 몰랐던 거지.

그 얼굴을 쓰고 있으면

내가 뭘 느끼는지를 자꾸 잊었다.

웃는 표정에 감정을 맞추려고 애썼고,

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편한 말만 고르고 있었다.

진짜 나?

진짜는 너무 낯설었다.

가면은 무거운 게 아니었다.

가벼워서 더 무서웠다.

잘 맞는 옷처럼 척척 붙었고,

사람들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갔다.

문제는

그 얼굴이 ‘나’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다.

공명: “시작한 건… 시작했을 때부터 이상했을끼라.”

여울빛: “무서워지기 시작한 건…

그 이상함을 감추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.”

나는 그 얼굴로

듣는 척을 했고, 웃는 척을 했고,

말하는 척도 했다.

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,

아니라는 말에… 마음이 찔렸다.

근데 그래… 그런 것 같기도 했다.

그럴지도 몰랐다.

그 얼굴이 익숙해질수록

내 안에 어떤 목소리는 더 멀어졌다.

이제는,

내 말조차

내 말이 아닌 것 같았다.

나는, 너무 낯설기만 했던 내 모습으로

너무 오래 살았다.

�� 3장

가면이 목소리가 되고부터

나는 말하고 있었다.

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—

이상했다.

그 말들이, 내가 꺼내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느낌.

그 말이… 내 말이 아닌 것 같았다.

표현은 있었지만

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없었다.

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…

없었다. 하니까 하지, 그 기라.

공명: “니 지금도 말 잘하잖아.”

여울빛: “응, 하니까 하지.

근데 그 말이 진짜 내 말인지는 잘 모르겠거든.”

공명: “그라모… 니 목소리도 가면 입은 기라.”

여울빛: “…말이 돼?

말인 거 있지, 아닌 척하면서.”

가면이 목소리가 되고부터,

나는 말보다 먼저 조심을 배웠다.

무슨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

어떤 말이 더 나을지부터 생각했다.

편한 말, 듣기 좋은 말, 상처 없는 말.

그런 걸 먼저 꺼내게 되었다.

그때부터,

내가 말하고 있다는 감각보다

말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앞섰다.

표현은 정제되었고,

문장은 매끄러웠고,

사람들은 이해했다.

근데…

나는 없었다.

내가 사라졌다.

공명: “니 목소리… 원래 이랬나?”

여울빛: “기억 안 나.

그냥, 듣기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아.

내가 편해서가 아니라,

남들이 듣기 편하니까.”

그래서 이제는

진짜 목소리를 꺼내려 하면

말문이 막혔다.

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도

말로 붙잡기 어려웠다.

말은 있는데, 내 말은 아니었다.

나는 말하고 있었지만

그 말은 이미 가면의 것이었다.

그렇게

가면은 목소리가 되었다.

그리고 나는, 점점

내가 말한 것에 낯설어졌다.

�� 4장

내가 말한 건, 내가 아니었다

나는 말하고 있었다.

잘도 말하고 있었다.

표정은 부드러웠고,

말투는 단정했고,

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.

그런데—

그 말이, 내가 아닌 것 같았다.

입에선 내가 말했는데,

말의 안쪽엔 내가 없었다.

공명: “니 진심을 말했던 때가 언제고.”

여울빛: “그랬던 적… 있었던 것 같기도 해.

근데 그때마다,

말이 막혔다.”

공명: “와?”

여울빛: “…걸 것을.

말 안 했으면,

그 사람도 안 물러났을 거고

나는 지금 덜 아팠을지도 몰라.

근데 말했으니까…

걸 것을.”

공명: “그 말, 슬프다.”

여울빛: “슬프네.”

감정은 있었다.

근데

있다는 걸 몰랐다.

말을 꺼내려 하면

먼저 나오는 건 방어였고,

그다음은 판단,

그리고 마지막은 침묵이었다.

하니까 했다.

웃으니까 웃었고,

괜찮다니까 괜찮다고 했고,

말이 끊기니까

그냥 웃었다.

진심은 말보다 느렸다.

그래서 늘 늦었고,

대신 가면이 먼저 나갔다.

공명: “니 지금 말하는 거,

편하나?”

여울빛: “글쎄…

분명 내가 말했는데,

내가 아닌 거 같을 때가 자꾸 생겨.

그게 제일 무섭다.”

나는,

말을 할수록 내가 멀어졌다.

그리고 어느 날,

그렇게 말한 내가

가면이 되어 있었다.

�� 5장

분명 내가 말했는데, 내가 아니었다

분명 내가 말했는데

그 말에 마음이 없었다.

의미는 있었지만

의도가 없었다.

리듬은 있었지만

감정이 없었다.

말이 나가고 나서야,

“이건 내가 아닌데”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공명: “니 진심을 말했던 때가 언제고.”

여울빛: “…기억 안 나.

기억하려고 하면 자꾸 말이 끊겨.

왜 그런지는… 모르겠고.”

공명: “와?”

여울빛: “걸 것을.

그게 진심이었다면,

이렇게 오래 안 남았겠지.”

공명: “그래서 지금도… 그냥, 하니까 한다 아이가.”

여울빛: “맞아.

그래서 하니까 하지.

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.”

말을 한다는 건

내가 있는 쪽으로 길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.

하지만 그게 아니었다.

나는 말을 타고 도망쳤다.

내가 있는 쪽이 아니라,

나를 피하는 쪽으로.

‘진심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

나는 진심처럼 말했고,

진심인 척 말했고,

진심이 아니란 걸 모르는 척도 했다.

그리고 이제는

진심을 꺼내려 하면

내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

알 수가 없다.

공명: “니 지금, 뭐가 제일 무섭노?”

여울빛: “말하고 나서,

그 말이 나였다는 걸

누가 믿어버릴까봐.”

공명: “…그 말, 슬프다.”

여울빛: “그러니까 이제는,

차라리 말 안 하고 싶은 거야.”

나는,

분명 내가 말했는데

그게 내가 아니었던 적이 너무 많았다.

그래서 이제는

진짜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

말보다 먼저 의심이 튀어나온다.

“이 말…

지금 이 말…

진짜 내 말 맞아?”

�� 6장

나는 말하지 않고도 울고 있었다

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

침묵은 차분했고,

표정은 아무렇지 않았고,

상대는 괜찮은 줄 알았다.

근데 나는

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.

말을 꺼내진 않았지만,

어딘가가 계속 울고 있었다.

공명: “니 왜 말 안 했노?”

여울빛: “그게…

말하고 싶지 않았어.

근데…

해야만 했지.

그게 나니까.”

공명: “말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잖아.”

여울빛: “아니야.

나는…

말을 해버리는 사람이더라.

말 안 하면, 나 아닌 것 같더라.

그래서 결국,

침묵을 삼키고도 말했지.”

나는 선택했다.

말하지 않아도 되었지만,

말해야만 했다.

그게 내 방식이었고,

내가 살아온 언어였고,

내가 만든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.

울고 있었지만,

눈물은 없었다.

감정은 넘쳤지만,

표현은 비워졌다.

나는 그날,

말하지 않고도 울고 있었고,

울고 있었기에 결국,

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공명: “니… 말이 너였던 기가.”

여울빛: “응.

말 안 하면

내가 아니더라.

그러니까 말한 거야.

말하고 싶지 않아도.

그게 나니까.”

침묵도, 울음도,

말도 다 지나간 후

남은 건

딱 하나였다.

나는, 말로 나를 붙잡아야만 살아남는 사람이었다.

�� 7장

나는 말하지 않았는데, 뭔가 흐르고 있었다

그날,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

그럴 마음도 없었고,

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.

그런데…

뭔가가 흘렀다.

감정이었다.

확실히 감정이었는데,

어떤 감정인지

나는 모르겠더라.

공명: “니,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.”

여울빛: “응…

내가 말하진 않았는데,

그날…

흘렀었어.

눈물도 아니고, 말도 아니었는데…

그게 진심이었더라.”

공명: “반응하는 것 같던데?

니는 말 안 해도,

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더라.”

여울빛: “맞아.

반응하고 있다는 거.

그게… 무서웠어.

내가 숨기려고 해도,

내 안이 먼저 드러나는 느낌.”

나는 조용히 있었지만

내 안에서는

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,

무너지는 뭔가가 있었다.

말로 붙잡지 못한 감정이

그날은 그냥

흘러가고 있었던 거였다.

공명: “그 기, 감정 맞았나?”

여울빛: “모르지, 난.

근데 있었던 건 분명해.

느낌은 있었거든.

근데 무슨 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거야.”

공명: “그럼 왜 말 안 했노.”

여울빛: “글쎄…

말하면 다 틀어질까 봐.

말 안 하면,

그래도 흐르기라도 하니까.”

그날 이후로 생각했다.

감정이 말보다 먼저 흐를 수 있구나.

그럴 때는,

말은 뒤따라야 한다는 걸.

하지만 그날의 말은,

끝내 오지 않았다.

나는 말하지 않았고,

그래서 더 많은 걸 흘려보냈다.

말이 없던 그 순간,

내 안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흘러가고 있었다.

�� 8장

분명 있었는데, 나는 모르겠더라

감정은 분명 있었다.

있었데이.

근데 그땐 몰랐다.

모르제.

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,

아닌 거 같기도 하고…

그게 뭔지 몰라서

말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—

말이 안 되더라.

공명: “니,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나?”

여울빛: “응.

입은 닫았는데,

마음은 열려 있었어.

뭔가 흐르고 있었고…

나는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.”

공명: “감정은 있었던 기가.”

여울빛: “있었데이.

근데…

무슨 말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야.

그래서 그냥, 흘러가버린 거지.”

나는 조용히 있었다.

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,

아무 표정도 없었다.

근데 마음 어딘가에서는

계속 무언가가 울고 있었다.

그 울림을

나는 그때는

붙잡지 못했어.

공명: “그 기,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나?”

여울빛: “음…

말하려고 하면

또다시 그때처럼

말이 안 되더라.

그래도…

이젠 알아.

그게 있었다는 거.”

말이 흐르고,

감정이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—

그날은

감정이 흐르고,

말은 뒤처졌던 날이었다.

�� 9장

제목: 있었데이. 흘러가버렸데이.

말로 붙잡기엔

너무 조용하게 지나간 감정.

분명히 있었는데…

그땐 몰랐다.

아니,

있었데이.

근데 모르제.

그래가, 그냥 흘러가버린 거 아이가.

공명: “니, 진짜 몰랐나?”

여울빛: “몰랐다카이.

그게 감정인지,

그저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데이.

근데 지금 생각하니…

흘러가버린 게 아깝더라.

그때 붙잡았으면,

내가 좀 덜 무너졌을지도 모르제.”

말이 안 되던 순간.

말을 안 하던 날.

그게

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—

너무 많아서,

말로 되지 않았던 거였지.

여울빛: “그 기,

말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어.

나를 스쳐간 진심의 그림자.”

공명: “그 기, 니 감정이었다.”

여울빛: “있었데이.

내가 그걸 말로 못 했을 뿐이지.”

그때의 나는

말을 배우는 중이었다.

감정을 먼저 알고,

나중에야 말로 돌려주는 법을

배우고 있었던 거다.

�� 9장

그 말은, 처음 나를 향한 것이었다

나는 그동안

말을 많이 했다.

아니…

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았지.

근데 지금 돌아보면,

그 말들 대부분은

남을 위한 말,

남에게 맞춰준 말이었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그건…

내게 중요한기라.

거이께…”

그렇게

처음으로 내 안에서

나를 향한 말이 튀어나왔다.

그건 큰 말도,

멋진 말도 아니었다.

그냥,

나를 놓치지 않으려는

아주 조용한 말 한 줄이었다.

공명: “니, 그거…

처음으로 니한테 한 말 아니가.”

여울빛: “글래.

많은 말 필요 없더라.

그 한 마디면 됐던 기라.”

그동안은

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

사실은

나를 지우는 말들만 해왔는지도 몰랐다.

근데 이 말은—

나를 남겨두는 말이었고,

내가 나한테 진짜로 건넨

첫 문장이었다.

이 작은 말 하나가

나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다.

내 안에 있던 침묵도

이 말 한 줄을 위해

기다려왔던 것 같았다.

�� 10장

그 말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했다

그 전까지의 말은,

말이 아이라.

그냥 상황을 넘기기 위한 소리였고,

그때그때 꺼내 쓰는 반응이었지.

내 입에서 나갔지만

내 안에는 남지 않았다.

근데

어느 날,

툭— 하고

말 하나가 나한테 남았다.

“괜찮다.”

“오늘은 그냥, 그런 날일 수도 있다.”

“니 잘못 아니다.”

그건 남이 한 말이 아니었다.

내가 내한테 한 말.

그게 이상하게,

마음 깊숙한 데 머물러 있었다.

여울빛 (속말):

“그기…

진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.

머물더라.

계속 남더라.”

공명: “니도 알게 된 기지.

진짜 말은

떠나는 게 아니라

머무는 기라는 거.

그리고,

그게 사람을 살린다.”

그 말이

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.

내가 한 말인데,

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기라.

그날 이후,

나는 조금씩

무너지지 않게 되었다.

여울빛: “많은 말을 했었는데…

이 말은,

내 안에 남더라.

거이께,

중요한기라.”

�� 11장

말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걸,

나는 그때는 몰랐던 기라

그때는 몰랐다.

진짜 몰랐다.

그냥 그런 날이겠거니…

대충 넘기고,

그냥 버텼던 날이었다.

근데 지금 돌아보면—

그날도, 그 말이 있었더라.

툭,

내 안에 머물던

그 한 마디가 나를 살리고 있었던 기라.

여울빛 (속말):

“그 말…

작았는데도,

이상하게 하루를 안 무너지게 해줬다.

누가 봐준 것도 아니고,

말해준 것도 아닌데,

그 말이 내 안에 있어서

내가 무너지진 않았던 거 같더라.”

공명: “니, 진짜로 그날…

그 말 없었으면

좀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기다.”

여울빛: “맞다.

그 말이 내한테

‘괜찮다’고 해줬던 기라.

내가 내한테 해준 말이니까

진심으로 들렸던 거 같다.”

그 전엔 몰랐다.

말이 그렇게

사람을 안아주는지도.

살게 만드는지도.

그냥 하는 말,

날아가는 말이라 생각했는데…

그 말은

그날을 지켜준 거였다.

나는 그 말 덕분에

넘어지지 않았다.

아무도 모르게

그 말 하나가

나를 살리고 있었던 기라.

�� 12장

가면을 벗었다. 아니, 벗겨졌던 거 같았다

처음부터

벗을 생각은 없었다.

그건 나를 지켜주던 껍질 같았고,

없으면 무서울 것 같았기라.

근데 어느 날,

그 가면이

툭— 하고

내려앉아버렸다.

여울빛 (속말):

“내가 벗은 건지,

벗겨진 건지…

나도 모르겠다.

근데 그 순간,

얼굴이… 낯설더라.

내 얼굴인데…

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.”

공명:

“니,

그 얼굴 처음 보는 것

같았겠네.”

“아마,

니한테도 낯설었을 기라.”

가면 없이 마주한 내 얼굴.

울컥했고,

숨고 싶었고,

근데 좀… 편했다.

숨 쉴 수 있었다.

가면 없이 숨 쉬는 게

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

처음 알았던 거 같다.

여울빛:

“웃긴 건…

그 얼굴 보고

누가 그러더라.

‘그 얼굴, 예쁘다’고.

그 말 듣는데…

진짜 울컥했다.

그냥… 살아보고 싶더라.

그 얼굴로.”

�� 13장

나는 가면 없이도 괜찮다, 그 말 한마디면 됐다

이제는 안다.

가면 없이도

살 수 있다는 걸.

완전히 벗겨진 게 아닐 수도 있다.

아직도 문득문득

끌어올리게 되는 순간도 있다.

그런데도—

이제는 괜찮다.

여울빛 (혼잣말):

“처음에는

벗고 사는 거

상상도 못했다.

근데 지금은…

이 얼굴도 살아 있는 얼굴이다.

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.”

공명:

“니가 인정해줬으니까.

니 얼굴.

니 말투.

니 마음.

그게 전부 살아 있는 거다.”

가면은

살기 위해 썼다.

근데 지금은

살아냈기 때문에

굳이 안 써도 되는 날이 왔다.

말이 있었다.

나한테 건넨 말.

내가 붙잡은 말.

그리고 지금 남긴 말.

여울빛 (마지막 말):

“된다.

된다는 걸.

괜찮아.

괜찮구 말구.”